

문재인정부

4년 반

외신보도 분석

74개 국가, 2,006개 매체, 12만5,375건의 외신기사

- 2017년 5월 10일부터 2021년 11월 9일까지 -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요약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KOCIS** 해외문화홍보원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 분석개요

○ 분석 목적

-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보고된 한국 관련 외신 기사를 분야별, 시기별, 지역별로 분석하여 외신 보도 흐름이 과거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한민국과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고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고민해야 하는 과제 등에 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분석 기간 : 2017년 5월 10일 ~ 2021년 11월 9일/ 4년 6개월

○ 분석 대상 : 해외문화홍보원 외신지원시스템에 보고된 한국 관련 외신기사 일체

- 74개 국가, 2,006개 매체, 총 12만5,375건의 외신기사

- * 외신지원시스템의 기사 보고 시스템 : 기사 보고는 33개 한국문화원과 9곳의 문화홍보관 모니터링, 그리고 해외문화홍보원 자체 모니터링(내부+외부업체)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제 분류는 기본 매뉴얼을 따르되 보고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시기 구분

| | |
|-----------------------------------|------------------------------|
| 국정 1년차(2017.5.10.~2018.5.9.) | 국정 2년차(2018.5.10.~2019.5.9.) |
| 국정 3년차(2019.5.10.~2020.5.9.) | 국정 4년차(2020.5.10.~2021.5.9.) |
| 국정 5년차(2021.5.10.~2021.11.9./6개월) | |

- ### ○ 주제 구분
- : 외신지원시스템의 분류 기준에 따라, ▲남북관계+북한동향 ▲정상 외교+대통령 ▲외교안보 ▲코로나19(세계·한국) ▲K팝+문화+스포츠 ▲경제 ▲사회 ▲국내정치 ▲환경/기술 ▲국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 일부 항목은 내용의 유사·중복성을 고려하여 통합했고, 문화·스포츠에 관한 내용은 ‘한류(K-컬처)’, 기후변화 대응·우주산업 육성 등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정과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구분함

○ 분석 오류의 가능성

- ① 대한민국 관련 외신 기사는 가능한 한 전부 보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모니터링 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긴급하며 의미 있는 보도를 위주로 보고되어 왔음. 따라서 동 기간에 보도된 외신기사 ‘전부’에 대한 분석은 아니며, 외신지원시스템에 등재된 기사만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② 기사 보고가 보고 주체의 판단에 의거하고 있고, 하나의 기사 안에 여러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도 주제나 보도 유형 분류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③ 국가별 모니터링 인력과 환경이 다르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나 관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사 보고량에 있어 특정 국가 치우침 현상이 발견되었음(일본 기사량은 여타 국가의 보고량을 현저한 수준으로 압도함). 따라서 권역이나 국가별 보도량을 절대 비교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커다란 오류를 안고 있다고 판단, 제한적으로만 분석함
- ④ 모니터링 각 주체가 동시에 기사를 보고하는 ‘기사 중복’ 오류가 있으나, 양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12만5,150건 기사 중 중복기사는 491건으로, 전체의 0.4% 수준), 정량분석 시 중복기사를 배제하지 않음
- ⑤ 동 분석보고서의 분석 내용은 외신기사시스템에 보고된 ‘비공식 국문 번역’을 기초 자료로 활용한 것이므로, 오역이나 표현상의 어색함이 있을 수 있음

※ **매체 표기** : 매체명이 영어인 경우에는 영문, 그 외 언어인 경우에는 국문 표기 또는 원어와 병기함

❖ 분석요약

① 시기별 보도흐름

○ 4년 반 동안 전체 외신보도량 꾸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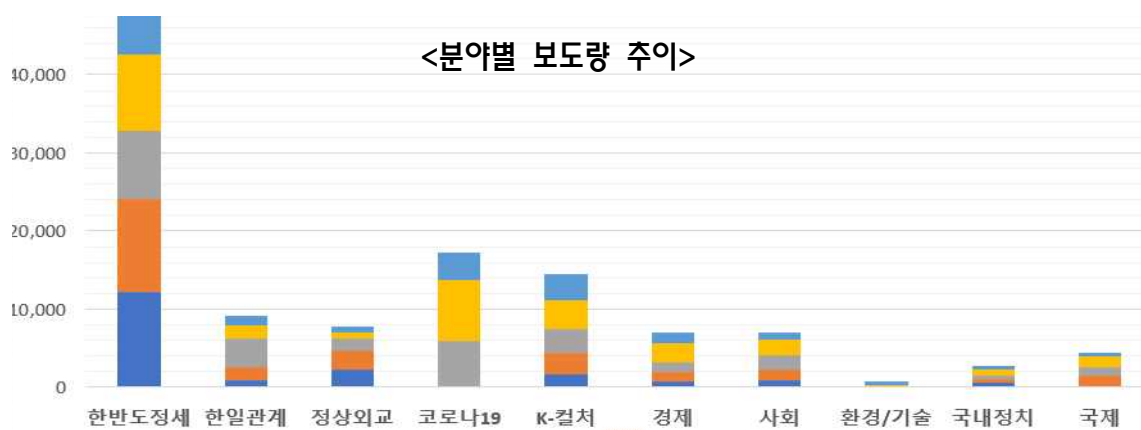
- [국정1-2년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국정3년차] 코로나19 대응(K-방역), [국정4-5년차] K-팝, K-콘텐츠 열풍 등이 보도량 증가 견인

<국정시기별 주요 사건과 전체 보도량>

| 시기 | 국정 1년차 '17.5.10.~'18.5.9. | 국정 2년차 '18.5.10.~'19.5.9. | 국정 3년차 '19.5.10.~'20.5.9. | 국정 4년차 '20.5.10.~'21.5.9. | 국정 5년차 '21.5.10.~'21.11.9.(6개월) |
|-------|---|--|---------------------------------|--|---|
| 주요 사건 | -문재인 정부 출범 -한중갈등(사드배치) -평창동계올림픽(북한참가) -미투 운동 | -남북,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소득격차불균형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 대책 | -코로나19 팬데믹과 K-방역 -한일갈등(수출규제) | -<기생충> 오스카상 수상, BTS 빌보드 1위 등 K-Boom -美 바이든 정부 출범 -백신 접종 시작 | -팬데믹 지속,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오징어 게임> 열풍 -도쿄올림픽 개최 -日 기시다 내각 출범 |
| 보도량 | 21,586건 | +13% 24,425건 | +18% 28,765건 | +11% 32,028건 | +8%추정 18,571건 |

○ 분야별 보도비중(전체 12만5,375건 중, '기타' 분야는 제외)

- 한반도 정세 38.4% > 코로나19 13.7% > K-컬처 11.6% > 한일관계 7.3% > 정상외교 6.2% > 경제 5.6% > 사회 5.6% > 국제 3.6% > 국내정치 2.2% > 환경기술 0.6% 순



| | 한반도정세 | 한일관계 | 정상외교 | 코로나19 | K-컬처 | 경제 | 사회 | 환경/기술 | 국내정치 | 국제 |
|-----|----------|---------|-------|---------|---------|---------|---------|-------|-------|-------|
| 5년차 | 5,600 | 1,162 | 727 | 3,430 | 3,326 ④ | 1,482 | 937 | 463 | 442 | 519 |
| 4년차 | 9,751 | 1,753 | 804 ⑧ | 7,915 ② | 3,711 ③ | 2,377 ⑥ | 2,013 ⑦ | 312 | 691 | 1,304 |
| 3년차 | 8,671 | 3,693 ⑤ | 1,628 | 5,880 | 3,028 | 1,313 | 1,760 | 0 | 550 | 1,130 |
| 2년차 | 11,886 ① | 1,590 | 2,362 | 0 | 2,769 | 1,136 | 1,368 | 0 | 434 | 1,531 |
| 1년차 | 12,207 | 946 | 2,295 | 0 | 1,665 | 774 | 947 | 0 | 595 | 0 |
| 전 체 | 48,115 | 9,144 | 7,816 | 17,225 | 14,499 | 7,082 | 7,025 | 775 | 2,712 | 4,484 |

○ 분야별 보도량 변화에 관한 분석

- (표2-①) [국정1-2년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내용에 보도 집중
- (표2-②) [국정3-5년차]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한반도 정세’ 다음으로 많았음
- (표2-③) [국정4-5년차] BTS·기생충·오징어게임 영향으로 ‘K-컬처’ 보도 급증
- (표2-④) 국정5년차 ‘반년’ 간 보도량이 3,326건, 국정1년차 1,665건의 두 배
- (표2-⑤) 한-일 경제·외교 갈등이 심화되었던 국정3년차 ‘한일관계’ 보도량 최다
- (표2-⑥) 각종 지표상 ‘한국 팬데믹 회복력’ 보인 국정 4년차에 ‘경제’ 보도량 최다
- (표2-⑦)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국정4년차에 ‘사회’ 관련 보도량 최다
- (표2-⑧) 코로나19로 해외 순방이 어려웠던 국정4년차에 ‘정상외교’ 보도량 최저

② 권역별 · 국가별 보도흐름

*권역구분 : 아주(아시아·태평양), 구주(유럽), 미주(남·북미), 아중동(아프리카·중동)

○ 권역별 · 국가별 전체 보도량 비교

- 권역별 : 아주(68,564) > 구주(30,695) > 미주(20,749) > 아중동(5,022) 순
- 국가별 : 일본(33,651) > 미국(14,501) > 중국(7,265) > 인도(6,012) > 영국(5,534) > 러시아(4,724) > 호주(4,450) > 인도네시아(4,336) > 베트남(4,126) > 멕시코(3,923) 등의 순

○ 보도량 증가율 비교

- 전 권역에서 보도량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국정 1년차와 4년차의 보도량을 비교했을 때, 미주(60%), 아주(23%), 구주(18%), 아중동(15%)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음

| <권역별 기사보고량 추이> | 아주 | 구주 | 미주 | 아중동 |
|----------------|--------|-------|-------|-------|
| 국정 5년차(6개월) | 10,296 | 4,343 | 3,412 | 455 |
| 국정 4년차 | 16,673 | 7,233 | 6,759 | 1,109 |
| 국정 3년차 | 14,801 | 7,254 | 5,045 | 1,169 |
| 국정 2년차 | 13,989 | 5,963 | 2,786 | 1,353 |
| 국정 1년차 | 12,812 | 5,914 | 2,754 | 941 |

○ 권역별 보도량 증가의 요인과 특징

- (아주) 신남방 국가 언론들의 관심 증대로 아주권 보도량 증가
 - 5년 새 주요 신남방 국가들 보도량 순위 급상승 (인도 8→3위, 인도네시아 14→7위, 태국 20위권 밖→8위)
 - 보도량 TOP20 국가들 중 신남방 국가가 국정 1~4년차에는 1~2개뿐이었으나 국정 5년차에는 6개 포함
- (미주와 구주) K-방역과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보도량 증가 견인
 - 코로나19 상황과 대응에 관해, 발병 시점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영국이 보도 순위 2-3위로 많이 보도해, 높은 관심도 반영(1위는 일본)
 - K-컬처 관련, 국정 3년차부터 미국 보도량 급증(12위→12위→5위→2위→3위), 매 시기 보도량 TOP20 안에 미주·구주 국가들이 9~10곳 포함
- (아중동) 한국을 보도하는 국가와 보도주제 다변화
 - 국정 1년차에는 아중동 지역 중 나이지리아의 보도만 두드러졌다면(문화원 역량 차이에 의한 것일 수 있음), 국정 2년차부터는 이집트와 UAE 등 여러 국가에서 보도되었고, K-컬처, 경제, 코로나19, 사회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짐
 - 특히 나이지리아와 이집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국가별 보도량 순위에서 나이지리아는 국정 1,2,5년차에, 이집트는 국정 3,4년차에 상위 20위에 포함)

3] 분야별 세부 보도흐름

1. 미디어 환경 : 아시아 미디어 허브로의 토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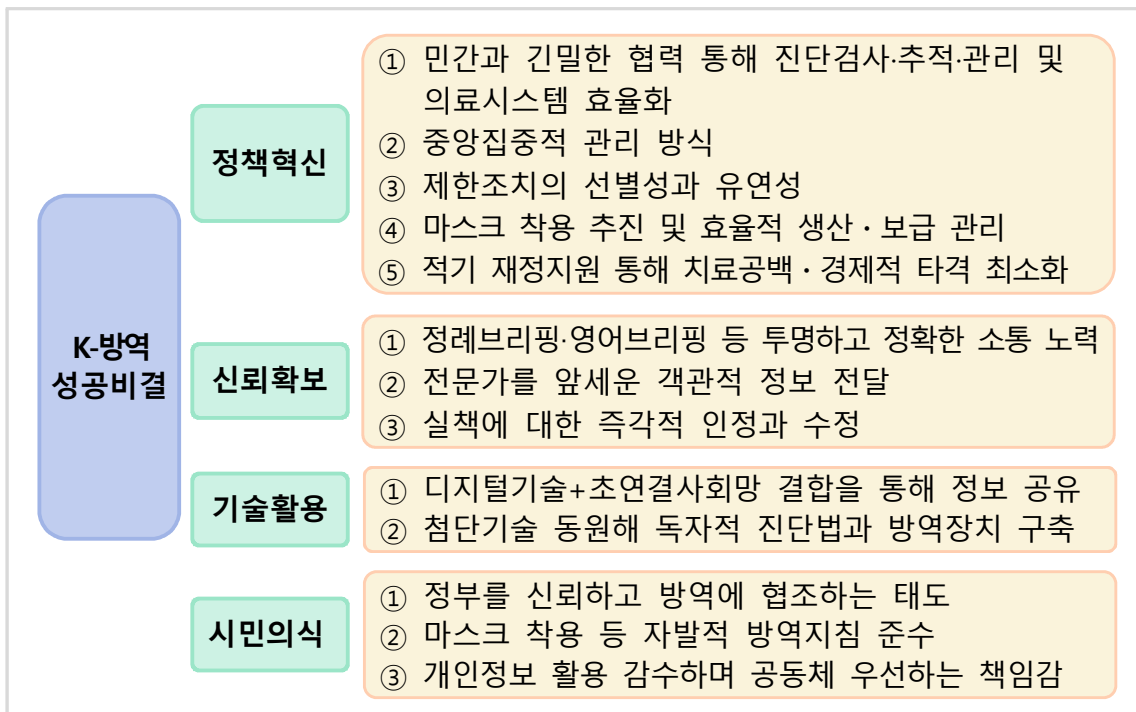
- 서울, 외신들의 매력적인 상주 지역으로 부상
 - <USA Today/The Guardian/UPI 등> 2018년 특파원 파견 시작
 - <WP> 2020년 서울과 런던을 속보 거점 두 곳으로 선정
 - <NYT> 2020년 디지털뉴스 운영본부와 기자단 상당수 홍콩→서울 이전
 - ※ 영국 잡지 <Monocle> “(외신들의) 한국으로 갈아타기 Korea Change” 조명
- 모니터링 매체수(305→3,990) 및 기사량(9,010→30,351) 10년 새 대폭 증가
- 팬데믹 계기, 외신보도가 우리 국민의 현안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 확인
 - ※ 외신보도 본 후, 정부 방역대응을 긍정적으로 인식 50.5%(「외신이 본 K방역(‘20.12월)」)

2. 코로나19 : 세계가 놀란 K-방역과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

○ ‘중국 외 최대 발병국’에서 ‘방역 모범국’으로

- 외신들, △첨단기술 활용한 창의적 방역모델, △유연하고 혁신적인 정책, △일관되고 투명한 소통,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K-방역 특징으로 분석

<외신에서 자주 언급된 K-방역 성공 비결>



- 팬데믹 속에서도 최고 투표율로 치러낸 4.15총선, 거시경제 회복력 등 부각
 - * <NYT> 한국의 총선...코로나19 이겨낸 민주주의(20.4.16)
 - * <WP> 봉쇄 없는 한국과 일본, 코로나와의 공존과 관련해 귀감(21.10.21)
 - * 독일 <디차이트> 코로나19 대응지표—한국 OECD 13개국 중 1위(20.3.11)
 - * <아워월드인데이터> 치사율과 GDP성장률...한국은 보건-경제 모두 보호(20.3.11)

○ 국제질서 선도할 기회 맞이...돌파감염의 새 위기도 극복할지 이목집중

- G7정상회의 초청, 진단키트와 경험 공유 등으로 한국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
 - * <Diplomat> Kyle Ferrier KEI학술국장 "책임감 있는 중견국으로 힘 더할 기회"(20.4.30)
 - * <National Interest> 한국, 중진국으로서 힘 발휘해(21.7.30)
- 한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21.11.1)’ 이후 맞이한 확진자 급증의 새로운 위기에 외신들도 예의주시. K-방역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

3. 경제 : 위기에 강한 나라

○ 대한민국 거시경제 지표들 ‘회복세’ 가리켜

- GDP성장률과 수출·소비심리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반적으로 ‘회복’ 기조
- IMF, JP모건, ADB 등 다수 기관들 ‘올해 한국 성장률 4%대’ 예측
-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국민총소득 G7수준 진입 등 국가경쟁력 부문도 양호
- * <Forbes> “또 회의론자들이 틀렸음을 입증...‘테플론처럼 강한 한국(Teflon Korea)’”(21.5.1)
- * <US뉴스&월드리포트>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세계 8위의 강대국(21.8월)
- * <Bloomberg> 부국 지위 넘보는 한국(21.4.27)

<올해 보도된 주요 한국 경제 지표들>

| | | |
|--------|--|---|
| 경제 성장 | 2021년 한국경제 4%대 성장 전망 - (1분기) 1.6% (2분기) 0.8% - (3분기) 0.6% 성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역성장(-1%)을 딛고 2019년 말 수준 회복 • 3분기에 강력한 코로나19 규제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해외 전문가들 “백신접종률 등에 힘입어 성장 다시 속도 낼 것”...한은 올해 4%성장 낙관 *FT(10.26) |
| | 2020년 1인당 GDP 세계 10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1인당 GDP 3만1497달러로 이탈리아 앞서... 경제규모는 세계 10위(2 ↑) *미국 UPI/러시아 레그늄(1.12) |
| | 주요 국제기구 및 투자은행 2021년 한국 성장 4%대 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한국경제 성장전망(%), '21년상→'21년하반기) [IMF] 3.6→ 4.3(7.27) [JP모건] 3.5→ 4.6(5.20) [ADB] 3.5→ 4.0(7.20) [피치] 4.5→ 4.0(9.17) |
| 경제 동향 | 2021년 10월 수출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10월 기준 역대 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데믹 난관에도 수출 두 자릿수 상승 지속 *Bloomberg(11.1) |
| | 2021년 10월 26일 한국 무역액 1조 달러 돌파...역대 최단기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26일 오후 1시53분, 무역 총액 1조 달러 돌파... 195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단 기록 *중국신문사(10.26) |
| | 2021년 4월 민간소비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가전 중심, 민간소비 1.1% 증가 *FAZ(4.28) |
| | 2021년 5월 소비심리 105.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심리지수(CCSI) 5개월 연속 상승, 3년래 최고 수준...강력한 회복 신호 *Bloomberg(5.25) |
| | 2021년 9월 구매관리자지수 5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확장 신호인 50을 12개월 연속 초과 *Reuters(10.1) |
| 국가 경쟁력 |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Bloomberg, 2.3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개국 중 1위 (*2020년은 독일에 이어 2위) -R&D와 제조능력 부문 1위, 특히 활동도 증가 -지수가 발표된 9회 중 7회 동안 1위 기록 |
| | UNCTAD, “이제 한국은 선진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무역개발회의(UNCTAD), ‘한국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 만장일치 의결 *중국 신경보(7.9) |
| | 2021년 1월 종합주가지수(KOSPI) 사상 첫 3,000 돌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피 2,000선 돌파 이후 13.5년만에 3,000선 달성 • 코스닥 2000년 이후 첫 1,000 돌파 *Reuters(1.6) |

○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와 한국판 뉴딜 등 혁신적 정책 추진 호평

- 과감한 경기부양책으로 코로나19 타격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견인했으며, ‘한국판 뉴딜’ 등 혁신 정책으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있다고 평가
-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란셋(LANCET, 국제학술지) 등

- 다만, 국가·기업·가계 부채와 인구감소는 향후 경제성장과 안보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므로 집중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 다수
 - *IMF, “한국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빨라”(21.11.8/중국계면신문)
 - *오징어게임 디스토피아의 영감이 된 한국의 부채위기(영국Guardian 등, 21.9-11월)
- 중국의 에너지 부족 사태와 공급망 병목 현상,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 등도 위기 요인으로 지목 (Bloomberg, Reuters 등, 21.10월)

4. 환경 · 기술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부린 씨앗

-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등 환경·기후변화 분야 선도 노력 주목
 - 특히, 2020년 한·중·일 탄소중립 선언과 2021년 서울P4G 회의 개최는 세계 ‘녹색회복’ 돕는 결정이자, 환경분야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평가됨
 - *영국 <Reuters> 서울P4G, 포용적 리더십으로 환경분야 선도국 발돋움 기회(21.5.28)
 - *미국 <Diplomat> 한국 자체적인 녹색성장 노력과 개도국이 유사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동시에 보여준 공개적 자리로 각별한 가치(21.6.4)
 - *오스트리아 <Wiener Zeitung> 갈등 중인 마중이 함께 서명했다는 점도 의미(21.6.5)
- 자동차·우주 등 미래 과학과 신산업에 대한 한국 투자 계획에도 관심
 -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참여도 한국이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 인터넷 연결 등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Diplomat 등)
 - *미국 <Bloomberg> 글로벌 우주경쟁에 있어 위상 제고 추구하는 한국(21.7.15)
 - *미국 <NYT> 우주강국 클럽 진입에 한 발자국만 남겨놓은 한국(21.10.21)

5. K-컬처 : 세계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신드롬으로

- K-Boom, 한국 관련 보도량 증가 견인하는 세계적 신드롬으로
 - 국정시기별 한류 관련 보도량을 보면 1,669→ 2,810→ 2,980→ 3,700→ 3,300로, 국정 5년차 반년 간의 보도량이 국정1년차 보도량의 두 배
 -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게임’, K-팝 그룹 ‘BTS’ 등이 K-신드롬 주역
 - K-팝과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와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대
- ※ 영국 옥스퍼드영어사전측, 한국어 표현 26개 무더기 등재...“우리는 모두 한류라는 파도의 정점을 타고 있다” 등재 이유 설명(21.9월, BBC 등에 보도)

- 신남방 지역의 ‘한류 고성장’ 움직임과 일본 ‘제4의 한류 붐’ 등도 조명
 - ※ [해외한류지수] 인도·인도네시아는 대표적 한류 고성장 국가(KOFICE, 21.1.28)
 - ※ 일본 <요미우리중고생신문> “일본에서 4차 한류 붐 일어나” 특집(21.1.12)
- ‘오징어 게임’ 열풍 이후 한류 확산 현황과 요인 분석 기사 쏟아져
 - ‘K-복합어’의 확산은 매력적이고 우수한 문화콘텐츠와 잘 짜여진 정책의 총합이며, SNS와 OTT 산업 발전이 K-콘텐츠 확산의 동력이라고 분석

<외신들이 꼽은 K-컬처 성장의 7대 요인>

| | |
|---|--|
| ①세련되고 수준높은 콘텐츠 |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들은 제작 과정이나 아티스트들의 능력 면에서 높은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음 |
| ②독창적이고 다양한 스토리 | 특히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들은 서구권에서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와 관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
| ③아시아 문화의 보수적 특성 - 전 세대 향유 가능 | 아시아 문화권의 특성으로 성이나 폭력을 표현하는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음 |
| ④세계 공통의 사회적 스트레스와 세대특징적 고민 반영 | 최근 해외에서 폭발적 관심을 받은 영화나 드라마들의 경우 세계가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병폐에 관해 다루고 있음. 또한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가수들은 자전적인 고민이 담긴 가사와 퍼포먼스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세대 간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 |
| ⑤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의 문화 지원 정책과 그에 힘입어 시작된 체계적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막강한 콘텐츠의 힘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음 |
| ⑥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성 |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K팝 팬덤의 관심이 K-콘텐츠 전반으로 확산되며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전파되는 양상 |
| ⑦정치사회적 영향력 행사 | K팝 팬들이 적극적인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해 정치사회적 이슈에 의견을 드러내는 현상이 나타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하나의 세력으로 부상 |

- K-컬처의 성장은 경제와 외교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
 -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에도 K-컬처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상당수 제기(일·미 언론 중심)
- K-콘텐츠가 거둔 세계적 성공은 문화적 장벽을 깨는 사건이자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

- 서구 국가들에는 문화적 편견을 깨는 계기로(미주구주 지역 언론), 동아시아 국가들에는 지향해야 할 모델로서(신남방 지역 언론)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

6. 안보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담대한 도전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역사적인 드라마로 평가받을 만한 사건’
 - 정부 출범 2년 안에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새 역사’를 썼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력과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
 - ※ <NBC> “Historic shift”, <TIME> “New history” 등 표제로 부각(18.4.27)
-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주목
 - 종전선언은 미·중·일·러 등 주요 당사국 의지 없이는 풀기 어려운 난제이고, 일본의 반대가 확고해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지배적
 - 그러나 핵 위협을 완화하고 ‘종전선언’ 화두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에 의미부여
 - 찬반이 있지만, 바이든 정부가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북한을 다시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칼럼 다수(Diplomat, NI, FP, VOA 등)
 - ※ 미 하원의원 23명, 바이든 대통령에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서한(21.11.5)
 - ※ 영국 하원, 미 하원에서 21.5월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결의안 발의(21.7.23)
 - ※ 프랑스 상원, 종전선언 지지결의안 발의(21.11.29)
 - vs. 미 공화당 하원의원 35명, 종전선언 반대 서한(21.12.9)

7. 외교 :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책임있는 선도국가로

- ‘견고한 한미동맹’, ‘소통하고 교류하는 한·중·일’ 위해 노력
 -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견고한 한미동맹을 확인한 계기로 평가
 - 중국·일본과는 역사·영토·무역 등 현안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문화교류 확대 등 통해 관계개선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하는 시각 우세
 - *일본 <사가신문> ‘제4차 한류 붐’ 볼 때 미래지향적인 좋은 관계 기대 가능(21.2.5)
 - ※ 일본 <마이니치> 한국문화 팬이 늘면 역사문제는 해결될까 : 요즘 한일관계 관련 학술세미나에 참석하면 “일본 젊은이들 중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한일관계는 저절로 개선될 것이므로 걱정할 것 없다”는 진단 많아...장기적으로 문화에 대한 호의는 상호 이해와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낙관(21.11.29)

※ 2021년 7월 일본 히토쓰바시대 학생 5명이 한일관계에 관한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담은 책 「‘한일’의 답답함과 대학생인 나」 출간…한반도 분야 베스트셀러

- 외교 지평을 넓히고 연대와 협력 이끄는 책임있는 선도국 위해 노력
 - G7정상회의, UN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고, 신남방 신북방 등 다양한 나라들과 연대·협력을 모색하면서 외교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는 평. 역내 한국의 외교안보 영향력과 관여도 더 높일 것 주문
 - *미국 <National Interest> 한국, 중진국으로서 힘 발휘해(21.7.30)
 - *러시아 <레그늄> G7정상회의 초청, 한국 글로벌 역할 강화(21.6.8)

8. 아직 남아있는 우리 사회의 과제

- K-방역, K-콘텐츠 열풍이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연결
 - 국정시기별 사회 분야 보도량은 947→ 1,368→ 1,760→ 2,013→ 937로, K-콘텐츠 성과가 두드러졌던 국정4년차에 대폭 증가(국정1년차의 두 배)
- 각종 범죄와 병폐들은 대체로 선진국 한국의 어두운 이면으로 그려짐
 - 사회 분야 부정적 기사들은 한류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제기
 - *영국 <FT> 늘어나는 성폭력 폭로가 한국 문화확산에 위협이 되는 이유(20.9.14)
 - 그러나 미투와 젠더갈등, 학폭 고발 등은 ‘문화적 성찰’로 해석되기도 함
 - *미국 <WP> 스포츠와 K-팝 스타들 관련 학폭 의혹 잇따라...한국에서 더 큰 차원의 문화적 ‘성찰’ 일어나는 것(21.5.20)
 - *영국 <Economist> 목소리를 내려고 맞서 싸우는 한국 여성들(20.4.11)
 -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도 시급한 당면과제로 지적됨
 - *미국 <Bloomberg> 루비콘강 건넌 한국 인구감소. 2020년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발생...워킹맘 배려 정책 시급(21.5.13, 5.26)
- 분쟁·내란·난민문제 등 국제 현안에 있어서도 한국의 관여도와 영향력 확대를 기대
 - 한국이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함으로써 국제사회와 연대의 계기를 마련해 가는 모습이 외신에서도 관심있게 조명됨
 - *미얀마·홍콩 민주화 운동 지지, 아프간 난민(특별공로자) 긴급수송과 포용 등